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30



Contents

※ 2026.05.14.(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5.07.~2026.05.13.)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광명시,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관리 '데이터스테이션·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2026.05.13) ..1
- 충청남도, '탄소업슈' 확대 운영...탄소중립 실천 시 최대 10만원 혜택 제공 (2026.05.13) 1
- 강진군, 탄소중립 도시숲 14억원 투입해 조성 추진 (2026.05.12) 2
- 광명시, 녹색건축 민간 확산 본격화...탄소중립 도시 전환 가속 (2026.05.07) 2
- 경산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퇴근길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 전개 (2026.05.08) 3
- 시흥시, 시흥에코센터 탄소중립체험관 시민 입장료 전면 무료화 (2026.05.07) 3
- 임실군, '마른논 써레질' 기술 보급으로 일손 부족 해소·탄소중립 동시 추진 (2026.05.10) ... 4

■ AI 분야 4

- 이재명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반도체·AI 협력 강화 합의 (2026.05.07) 4
- AIDC 특별법 법사위 통과...LNG 전력 직거래 조항은 제외 (2026.05.07) 5
- 국가AI컴퓨팅센터, 6월 해남 솔라시도에서 착공 예정 (2026.05.08) 5
- 서울시, AI 침수예측 등 포함한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2026.05.13) 6
- 광주 동구에 35억원 규모 'AI 헬스케어 실증 Complex' 조성 (2026.05.09) 6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LH, 기계설비전시회서 'AI 탄소중립 아파트' 기술 공개 (2026.05.13)7
-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최초 RE100 최종 인증 달성 (2026.05.08)7
- 한국건설기계연구원 김정대 신임 원장 취임...AI 전환·탄소중립 대응 강조 (2026.05.11) 8
- 울산항만공사, 북극항로 시대 탄소중립 에너지 물류허브 전략 포럼 개최 (2026.05.10) ·8
- 국립식량과학원장 기고: 논 한 필지에서 시작되는 탄소중립 (2026.05.07)9
- 인천TP, 녹색기후산업 기업과 '탄소중립 실현 동참 서약식' 개최 (2026.05.13)9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와 재생에너지 결합한 '에너지 생산형 집수리' 모델 확대 (2026.05.07)10

■ AI 분야 10

- ETRI, 'AI 고속도로' 구축 전략 포럼 개최 (2026.05.13)10
- 한국가스공사, 사내 전용 AI 모델 '업무 Mate' 오픈 (2026.05.11)11
- 소방청, AI 기반 119통합시스템·무인소방로봇 등 재난대응 첨단화 추진 (2026.05.07) 11
- 포항TP, 7개 기관과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 구축 업무협약 (2026.05.12)12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2

■ 탄소중립 분야 12

- 애플·포스텍, 중소기업 AX·탄소중립 지원 'SME Week' 6월 개최 (2026.05.13)12
- 서산 서일고, '탄소중립 이꿈이' 양성 통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추진 (2026.05.13)13

■ AI 분야 14

- SK하이닉스 박노정 사장, MS CEO 서밋 참석...빌 게이츠·나델라와 AI 협력 논의 (2026.05.12)	14
- 롯데건설, AI 기반 사전 예방형 품질경영 체계 전면 개편 (2026.05.13)	14
- 영림원소프트랩, 파주 'Y SPACE' 개관...AI·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2026.05.12)	15
- 오리엔트바이오, AI·정밀의학 기반 바이오 연구 인프라 사업 강화 (2026.05.12)	15
- 업스테이지, 포털 '다음' 인수 확정...차세대 AI 포털로 전환 추진 (2026.05.07)	16
- LG유플러스, 1분기 AIDC 매출 31% 급증...영업이익 2723억원 (2026.05.07)	16
- BNK부산은행, VVIP 고객 대상 'AI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2026.05.13)	16
- KAIST, 과학기술·외교 허브 '과기외교센터' 공식 출범 (2026.05.13)	17
- 동의과학대,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부산 유일 단독형 선정 (2026.05.13)	17
- KAIST 연구팀, 초고주파 정밀 신호원 구현 성공...6G·블랙홀 관측 활용 기대 (2026.05.11)	18
- 테슬라, 벨기에 플란데런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험 운행 승인 획득 (2026.05.13)	18
- 젠슨 황 제외된 트럼프 방중 재계 동행단...AI 칩 수출 협상카드 해석 (2026.05.12) ..	19
- 미국 vs 중국, AI 시대 노동시장 대응 정반대 양상 (2026.05.12)	19
- CME, 세계 최초 'GPU 임대료 선물시장' 하반기 개설 예정 (2026.05.13)	19
- 나델라 MS CEO, 머스크-오픈AI 재판에서 "오픈AI 투자 시 머스크로부터 연락 없었다" 증언 (2026.05.12)	20
- AI 해고가 미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충격과 한국 영향 분석 (2026.05.08)	20
- 국민 10명 중 3명만 소비생활에 AI 활용...권역별 격차도 확인 (2026.05.08)	2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p>☐ 광명시,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관리 '데이터스테이션·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광명시가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스테이션'과 시각화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에 착수. 2024년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서별·사업별 분산 데이터를 통합해 탄소 감축 정책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 - 데이터스테이션은 교통·환경·에너지·안전 등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관리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건물에너지정보·탄소중립포인트·ITS 등 기존 6개 행정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가상거래·AIoT 기반 침수 관제·전기차 공유 서비스 등 7종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연계. 통합플랫폼은 공직자용 '그린보드'와 시민용 '에코뷰'로 이원 운영. - 시는 지난 12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스템 설계와 데이터 연계 방안을 점검했으며, 내년 1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최혜민 시장 권한대행은 도시 데이터 연결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 제고와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확대 의지를 표명. <p>☐ 충남도, '탄소업슈' 확대 운영...탄소중립 실천 시 최대 10만원 혜택 제공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를 운영 중. 텀블러 사용·대중교통 이용·자전거 타기 등 일상적 감축 활동을 사진으로 인증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며,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해 시군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 - 올해는 도민 외 도내 직장 생활권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수송·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폐기물·홍보 등 17개 실천 항목으로 선택 폭 확대. 지급 기준도 '1만원 단위'에서 '1만원 이상 전액'으로 완화했으며, 농협은행과 협력해 대출금리 우대(최대 0.1%p 인하)와 환전 수수료 감면 등 금융 혜택도 추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는 4만8000여 명에게 총 2억300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약 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 달성. 도는 SNS·지역 축제·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
	<p>□ 강진군, 탄소중립 도시숲 14억원 투입해 조성 추진 (2026.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군이 산림청 주관 탄소중립 도시숲 사업으로 강진교차로 기후대응도시숲과 강진중앙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에 총 14억원을 투입하며,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생활권 내 경관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 - 강진교차로 기후대응 도시숲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강진산단 진입로 구간에 이팝나무·홍가시 등 15종 5096주의 교목·관목을 다층구조로 식재해 온실가스 흡수·폭염 완화 및 생활권 공기질 개선 도모. 강진중앙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은 학교 주변 보행로와 도로변에 42종 관목·초화류 1만여 본을 심어 차량·보행자 분리 및 통학환경 개선 추진. - 김진근 산림과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 지속 확충을 통한 체감형 녹색 인프라 확대 계획을 밝힘.
	<p>□ 광명시, 녹색건축 민간 확산 본격화...탄소중립 도시 전환 가속 (2026.0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시가 공공 중심 녹색건축 기반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발표. 정부 의무화 이전부터 자체 강화 기준을 적용해 어울리기 행복센터·문화발전소 등 12개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도입하고, 2020년 이후 그린리모델링 17건 중 15개소 공사를 완료하며 국도비 100억원 이상 확보. - 지난해 시립소하어린이집이 전국 공공건축물 최초 ZEB 플러스(+) 등급 본인증을 취득. 2022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녹색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책 수립부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에너지 데이터 분석까지 총괄하며, 19개 공공건축물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해 실시간 에너지·탄소배출 통합 관리 체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부터 시행할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는 공동주택 ZEB 확대·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지능형계량기(AMI) 보급·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등을 포함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 실현을 추진할 방침.
	<p>□ 경산시 탄소중립 서포터즈, 퇴근길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 전개 (2026.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일원에서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퇴근 시간대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 진행.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에너지·녹색생활) 안내 리플릿 배부와 참여 방법 안내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홍보 활동 전개. -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시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 방법과 제도 참여를 직접 안내하는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실시. 센터 관계자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행동을 알리기 위한 취지를 설명. - 김재완 환경과장은 탄소중립이 시민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이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 표명.
	<p>□ 시흥시, 시흥에코센터 탄소중립체험관 시민 입장료 전면 무료화 (2026.0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시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과 시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시흥에코센터 내 탄소중립체험관 이용 요금을 개편하고 5월 7일부터 시행. 가장 큰 변화는 시흥시민 입장료 전면 무료화로, 기존 유아·초등 1천원~성인 2천원이었던 입장료를 전면 면제. - 체험시설 이용료도 일부 조정돼, 전기자동차 체험시설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4D 영상관 성인 체험료는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단체 입장료(20명 이상)는 7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 비시흥시민은 기존대로 유료 운영. - 양순필 환경국장은 탄소중립체험관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직접 체험하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중요한 교육 공간이라며, 요금 개편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기대를 표명. 체험관은 지난해 6월 5일 개관 이후 시민 환경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p>
	<p>□ 임실군, '마른논 써레질' 기술 보급으로 일손 부족 해소·탄소중립 동시 추진 (2026.05.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임실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저탄소 농법인 '마른논 써레질' 기술 보급에 본격 착수. 논에 물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저 균평기로 논바닥을 평탄하게 고르는 공법으로, 기존 10~12일 소요되던 써레질을 5~6일로 약 50% 단축 가능. - 환경적 가치도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부유물질 농도를 기존 대비 약 98%까지 감축해 하천 생태계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3~6% 줄이는 것으로 확인. 오수면 신기리에서 시범사업 참여 농가와 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시연회 개최. - 심민 군수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마른논 써레질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획기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균평기의 적극 이용을 당부.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이재명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반도체·AI 협력 강화 합의 (2026.0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이 로프 예턴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를 통해 반도체와 AI, 퀀텀 등 첨단 분야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강구하자는 데 뜻을 모음. 올해가 한·네덜란드 수교 65주년임을 언급하며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평가. - 예턴 총리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을 유지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면서 배터리 및 해상풍력 등 여타 분야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화답.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한 예턴 총리에게 축하 인사도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정상은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p>□ AIDC 특별법 법사위 통과...LNG 전력 직거래 조항은 제외 (2026.0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지정하고 입지·인허가·전력 공급 등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AIDC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는 기후에너지부의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 삭제.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기획한 GPU 26만장 규모에 약 500MW, 추가 수요까지 고려 시 5GW 이상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급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계 부처 합의를 설명. 다만 2030년 이후 수요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답변. - AI 인프라 확대의 최대 변수인 전력 확보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법사위에서도 LNG 직거래 특례 삭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
	<p>□ 국가AI컴퓨팅센터, 6월 해남 솔라시도에서 착공 예정 (2026.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총사업비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국가 AI컴퓨팅센터가 6월 말 착공을 목표로 본격 구축 절차에 돌입. 삼성SDS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 협의를 진행 중. - 센터는 부지면적 4만8996㎡, 연면적 1만6978㎡ 규모로 전산동·운영동·부속동이 들어서며, GPU 1만5000장이 탑재돼 초거대 AI 모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핵심 AI 인프라 역할 수행 예정.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 10월. - 사업에는 삼성SDS를 주관기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삼성물산·카카오·삼성전자·KT·클러쉬·전남도·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이 참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서울시, AI 침수예측 등 포함한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폭염·수방·안전·보건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을 위한 맞춤형 쉼터 4070개소 운영과 민간협력 기후동행쉼터 418개소 마련. - AI 기술을 활용해 기상레이더 영상을 분석하고 강남역·도림천 일대 등 주요 침수취약도로 15개소의 침수 위험을 예측해 현장 대응을 강화. 우기 전 하수관로 1627km 준설, 빗물받이 57.5만 개소 집중 청소, 맨홀 추락방지시설 1만28개 추가 설치 등 방재 시설 관리도 병행. - 김형래 정책기획관은 기후위기로 예측을 뛰어넘는 폭염과 기습 폭우가 일상이 된 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힘.
	<p>□ 광주 동구에 35억원 규모 'AI 헬스케어 실증 Complex' 조성 (2026.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 총사업비 35억원 규모의 도심형 AI 헬스케어 실증 거점이 조성. 중기부 24억5000만원(70%), 광주시 5억2500만원(15%), 동구 5억2500만원(15%)의 분담 구조로, 동구 'AI헬스케어 동구타워'(지상 8층·지하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 기업 입주공간·실증 지원시설·병원 연계 데이터셋 확보 기능을 집약. - 1층에 시민 대상 건강정보 상시 측정 시설, 2층에 동구 창업지원센터와 대응제약 실증연구센터, 3층에 운동처방 프로그램과 통합돌봄 테스트베드 등을 구성. '데이터 확보→기술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모델로 광주 최초 시도. - 동구는 관내 1000여 개 병원 인프라와 도심 의료 자원을 AI 헬스케어 산업으로 연계해 원도심 산업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구상. 앵커기업 대응제약과 전남대병원 등이 참여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LH, 기계설비전시회서 'AI 탄소중립 아파트' 기술 공개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코엑스 '2026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 참가해 'AI·스마트 특별관'을 운영. 전시관은 LH 주택도시역사관·지능형 탄소중립 설비·스마트 주거서비스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공동주택 기술 변화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 - 지능형 탄소중립 설비 공간에서는 AI 기반 난방 수요 예측 제어 기술·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공기열 히트펌프 등을 공개. 원격 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난방 수요 예측과 에너지 효율 제고 기술이 핵심. LG전자·삼성전자 플랫폼 연동 스마트홈 시스템과 AI 수질관리 시스템 등도 전시. - LH는 전시회 개막일인 13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기계설비 시공 품질 향상과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합의. 오주현 공공주택본부장은 AI·스마트 기술 기반 탄소중립 주거 기술 개발 지속 확대 의지를 표명.
	<p>☐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최초 RE100 최종 인증 달성 (2026.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RE100 인증 운영기관 CDP로부터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는 최종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RE100 가입 기업 가운데 첫 달성 사례를 기록. 수력발전 중심으로 조력·태양광 등 총 1.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력이 약 1.1GW로 최대 비중. - 지난해 공사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총 1,833GWh로, 사내 전력 사용량 1,747GWh를 초과 달성. 일반 가정 약 64만 가구 사용 가능 전력량에 해당. CDP의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RE100 평균 달성률 53% 대비 한국은 12%에 머물러 이번 성과의 의미가 더욱 부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GW 규모로 확대하고,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RE100 대응을 지원할 계획. 윤석대 사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RE100 등 녹색 무역 규범 변화에 대응한 국가 재생에너지 경쟁력 제고와 산업계 친환경 전력 확보 지원 의지를 밝힘.
	<p>□ 한국건설기계연구원 김정대 신임 원장 취임…AI 전환·탄소중립 대응 강조 (2026.05.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설기계연구원(KOCETI) 제4대 원장으로 부임한 김정대 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제조업의 AI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의지 표명. - 김 원장은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빠르게 연구·실증하고 현장에 적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와 실증·산업 적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 강화와 조직 내 소통·협업 문화 확대를 추진 과제로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등에서 산업기술·규제 개선·통상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한 행정 관료 출신. -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건설기계와 산업기계 분야 기술개발·시험·인증·실증·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
	<p>□ 울산항만공사, 북극항로 시대 탄소중립 에너지 물류허브 전략 포럼 개최 (2026.05.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항만공사(UPA)가 에너지안보환경협회(ESEA)와 공동으로 '북극항로 시대, 울산항 탄소중립 에너지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해상 물류환경 변화와 국제 해운 탈탄소 전환 이슈에 대응해 울산항을 친환경 에너지 물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모색. - 포럼은 울산항 친환경 에너지 항만 구축 로드맵·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울산항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역할·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감축 이행 전략 등 3개 세션으로 진행. 울산연구원 마영일 박사는 항만물류-산업단지-에너지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울산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동시 확보를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전문가들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시설 확대·정책 지원·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될 때 실질적 탄소중립 항만 구현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 양 기관은 울산항이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이자 에너지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 집중에 합의.
	<p>□ 국립식량과학원장 기고: 논 한 필지에서 시작되는 탄소중립 (2026.0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이 기고문을 통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이중 과제를 강조. 메탄의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약 28배에 달하며, 벼 재배 비중이 큰 한국 농업에서 논 물관리가 핵심 과제임을 지적. - 농촌진흥청의 저탄소 벼 재배 기술 패키지로 '마른논 씨레질'(메탄 약 14% 감축·에너지 약 17.7% 절감)·'다중물떼기'(메탄 최대 44% 감축)·'ICT 기반 논 물관리 이행 확인 계측기'를 소개. 센서와 영상 장치를 통한 실시간 수위 측정·기록으로 농업인의 노동·기록 부담 해소와 감축 성과 객관적 입증 가능. - 축적된 데이터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직불제·저탄소 농산물 인증·K-Credit 제도와 연계돼 경제적 가치로 전환돼야 하며, 논을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를 줄이는 녹색 전환의 전초기지로 변환하는 실천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임을 강조.
지방기관	<p>□ 인천TP, 녹색기후산업 기업과 '탄소중립 실현 동참 서약식' 개최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다지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동참 서약식'을 개최. '2026년도 녹색기후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오리엔테이션과 서약식 진행. - 중앙대 김정인 교수가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신설된 AI 교육에서는 IN교육컨설팅 박성민 대표가 기후산업과 AI의 융합 사례 및 활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전략을 공유. 참여 기업 관계자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최신 환경정책과 AI 활용 전략을 동시에 배울 수 있었다고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TP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녹색기후산업과 AI 기술 접목이 필수적 흐름이라며, 기업의 탄소중립 선도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 확대 의지를 밝힘. 인천시와 인천TP는 녹색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중.
	<p>□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와 재생에너지 결합한 '에너지 생산형 집수리' 모델 확대 (2026.0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도시재단이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과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기후위기로 냉·난방 수요 증가와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 - 두 기관은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에너지 복지 실현, 탄소중립 기반 도시환경 조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 특히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와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연계한 '에너지 생산형 집수리' 모델을 적용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를 추진. - 이병진 이사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연계한 에너지 복지 지원 모델을 확대하겠다고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체감형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ETRI, 'AI 고속도로' 구축 전략 포럼 개최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인 'AI 고속도로' 구축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 AI 고속도로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한 데이터·컴퓨팅·네트워크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RI는 CDMA·5G 등 50년간의 통신 기술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6G, AI-Native 네트워크, 미디어 부호화 등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가 전략 기여 방안을 모색. 포럼에서는 AI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ETRI의 R&D 전략과 기술 방향이 공유. - AI 모델의 개발부터 학습·추론·응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 목표.
	<p>□ 한국가스공사, 사내 전용 AI 모델 '업무 Mate' 오픈 (2026.05.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가 사내 업무 환경에 특화된 전용 AI 모델 '업무 Mate'를 본격 오픈. 민간 상용 AI의 문서 작성·요약·번역 기능은 물론 공사 내부 지식 기반 맞춤형 AI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 - 업무를 8개 분야로 분류해 약 1만3000건의 내부 문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SAP 설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연어 기반 검색 기능을 개발해 현장 설비 운영·정비 업무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 직원 정보 탐색 시간 단축과 업무 생산성 향상 기대. - 가스공사는 향후 생산·공급·건설 등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2단계 사업으로 AI가 스스로 업무 맥락을 이해하는 '에이전트 기반 AI 환경' 구축을 추진할 계획.
	<p>□ 소방청, AI 기반 119통합시스템·무인소방로봇 등 재난대응 첨단화 추진 (2026.0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승룡 소방청장이 글로벌화·첨단화·지능화를 소방의 3대 목표로 제시. 재난의 대형화·복합화로 소방대원 직접 접근이 어려운 '난접근성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인소방로봇·무인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확대와 시스템 지능화를 강조. - 소방청과 현대차가 공동개발한 무인소방로봇은 유독가스 현장에서 인명수색 효과를 입증했으며, 전국 보급 4대의 실증운행 결과를 토대로 2년 내 18대 추가 도입 계획. 내년부터 2030년까지 AI 기반 신고분석 기능을 도입해 음성인식으로 신고 내용을 자동 전환하고 출동 지령 시간을 단축하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소방청 R&D 예산 5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4.9% 증액됐으나 여전히 경찰 예산의 73% 수준에 불과해 예산 확보가 과제. 장기적으로 19개 시도별 상황실을 중앙 통제하고 무인드론 등 자원을 연동하는 운영 체계 구축 목표.
지방기관	<p>□ 포항TP, 7개 기관과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 구축 업무협약 (2026.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테크노파크 경북AI혁신본부가 포항시·MINDsLab·Neuromeka·한국피지컬AI협회·POSTECH·한동대 등 7개 기관과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 피지컬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과 포항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이 목적. - 피지컬AI는 인공지능이 3차원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로봇·기계 등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인식·판단·행동하는 기술로, 철강·이차전지·바이오·제조 등 포항 주력 산업과 접목 시 생산성 향상·공정 지능화·품질 고도화 등 혁신 효과 기대. - 7개 기관은 피지컬AI 데이터 생성·수집·가공 지원, AI 기반 신사업 발굴, 지역 AI기업 육성, AI 인재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포럼·전시 공동 개최, AI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애플·포스텍, 중소기업 AX·탄소중립 지원 'SME Week' 6월 개최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6월 9~11일 경북 포항 포스텍 내 센터에서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최 예정.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목표로 데이터·공정·품질 분야 집중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텍 안희갑 교수의 '스마트 팩토리 생산성 최적화 알고리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AX(AI 전환)와 ESG 경영 세션도 포함. 코오롱인더스트리의 ESG 및 친환경 제조 전략 사례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 대응 실무 방안을 제시하며, 스마트 랩에서는 머신러닝·비전기술·LLM 활용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적용 기술 교육도 병행. - 마지막 날에는 센터 엔지니어와 중소기업 관계자 간 1:1 맞춤형 컨설팅 세션을 진행하며, 참가비는 식사 포함 전액 무료. 포스텍 내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애플이 세계 최초로 설립한 제조업 특화 R&D 지원 기관으로, 첨단 스마트 제조 장비와 인프라를 활용한 무상 교육·컨설팅 서비스 제공.
<p>대학교</p> <p>대학교</p>	<p>□ 서산 서일고, '탄소중립 이꿈이' 양성 통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추진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서산 서일고등학교가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실천 중심 환경 교육을 추진. 지난 7일 청양군 기후환경교육원에서 '2026학년도 탄소중립 학교만들기 환경교육 체험학습'을 실시. - 학생들은 '충남의 산업과 그린잡'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특성과 미래 환경 직업군을 탐색하고, '젯빛으로 변한 도시를 구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실천적 역량을 배양. 1·2학년 33명의 '탄소중립 이꿈이' 학생들이 향후 학교와 지역사회 내 환경 보호 실천 활동을 주도하는 리더 역할 수행 예정. - 이수종 교장은 탄소중립이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라며, 생태 감수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성장과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강조. 학교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환경 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생태적 교육 혁신 모델 구축에 집중할 계획.
<p>해외</p>	<p>- 해당 없음</p>
<p>기타</p>	<p>- 해당 없음</p>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SK하이닉스 팍노정 사장, MS CEO 서밋 참석...빌 게이츠·나델라와 AI 협력 논의 (2026.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팍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MS 본사에서 개최되는 'MS CEO 서밋 2026'에 참석해 빌 게이츠 창업자·사티아 나델라 CEO 등과 연쇄 회동. 2024년에 이은 두 번째 참석으로, 국내 ICT 기업 중에서는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유일하게 동석. - SK하이닉스는 현재 MS 최신 AI 칩 '마이아 200'에 5세대 HBM(HBM3E)을 공급 중이며, MS는 해당 칩을 아이오와·애리조나 데이터센터에 배치 확대. 이번 행보는 핵심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안정성 확보와 차세대 제품 기술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 - 다양한 글로벌 기업 경영진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엔비디아·구글·AWS 등 주요 빅테크와의 추가 파트너십 논의 가능성도 제기.
	<p>☐ 롯데건설, AI 기반 사전 예방형 품질경영 체계 전면 개편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건설이 설계부터 시공·준공 이후까지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하자저감 TFT'를 신설. CS부문·건축공사부문·기전부문·기술연구원 등 주요 조직이 참여해 전 단계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모바일·웹 기반으로 수집한 현장 점검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주요 품질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 탐지하는 방식을 본격 도입. 현장별 위험 요소와 반복 하자 유형을 자동 분석·예측하고 '통합 체크리스트' 기반 표준화로 현장 간 품질 편차를 저감. - 시공 이력과 품질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전 과정 축적 데이터를 AI가 재분석해 기술 기준에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 품질 개선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영림원소프트랩, 파주 'Y SPACE' 개관...AI·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2026.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전문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이 경기도 파주에 연면적 약 5327㎡, 4개 동 규모의 'Y SPACE'를 개관하며 AI·클라우드 중심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 워크·워크스페이·워크숍·휴양 등 목적별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 - Y SPACE는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고객 확산으로 이어지는 R&D 밸류체인 실행 거점으로, AI 및 SaaS 기반 기술을 발굴해 제품 고도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 해외 고객·파트너와의 협업 거점이자 일본·동남아 시장 대상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술 교류의 전초기지로도 활용 예정. - 영림원소프트랩은 국내 최초 한국형 ERP 'K-System'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ERP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 'K-System Ace I&I'를 중심으로 AI·클라우드 기반 사업 영역을 확장.
	<p>□ 오리엔트바이오, AI·정밀의학 기반 바이오 연구 인프라 사업 강화 (2026.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트바이오가 AI 기반 신약개발과 정밀의학 시장 확대에 따라 35년 이상 축적한 실험동물 생산 기술과 비임상 연구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 연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 - 글로벌 바이오산업이 AI 기반 예측형 신약개발 체계로 전환되면서 표준화된 생물소재와 신뢰도 높은 비임상 데이터 확보가 핵심 요소로 부상. 오리엔트바이오는 설치류부터 비글견·영장류까지 다양한 생물소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간 축적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경쟁력으로 보유. - 단순 생물소재 공급을 넘어 질환모델 개발·비임상 연구 지원·연구 인프라 운영·AI 기반 바이오 데이터 활용 분야까지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업스테이지, 포털 '다음' 인수 확정...차세대 AI 포털로 전환 추진 (2026.0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카카오 자회사 AXZ(다음 운영사) 인수 본계약을 체결. 카카오가 AXZ 지분 100%를 업스테이지에 넘기고 업스테이지 신주 15~25%를 취득하는 주식 교환 방식. 지난 1월 MOU 후 약 4개월간 실사를 거쳐 확정. - 업스테이지는 미 스탠퍼드대에서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선정된 '솔라 오픈 100B'를 보유하고, 지난달 1800억원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 1조원을 인정받으며 국내 AI 모델 개발 스타트업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 이번 인수로 B2B를 넘어 솔라와 다음의 검색·콘텐츠 데이터를 결합한 일반 이용자 대상 'AI 포털'로 사업 확장. - 김성훈 대표는 30여 년 역사의 국민 포털과 국내 대표 AI 기업 기술력의 결합이 새로운 AI 포털 시대를 여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 업계는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
	<p>□ LG유플러스, 1분기 AIDC 매출 31% 급증...영업이익 2723억원 (2026.0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유플러스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3조8037억원, 영업이익 272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5%, 영업이익 6.6% 증가. AIDC 사업 매출이 1144억원으로 31.0% 급증하며 기업인프라 부문 성장을 견인. 코로케이션 중심에서 설계·구축·운영(DBO) 사업으로 확대 중. - 전체 모바일 가입회선 3093만1000여개로 6.4% 증가, 5G 핸드셋 가입자 947만3000명으로 11.0% 증가하며 5G 보급률 84.2%로 확대. 스마트홈 부문 수익 6563억원(4.1%↑), 인터넷 가입자 564만명(4.5%↑) 등 전 사업 부문 고른 성장세. - 15일 장부금액 기준 약 8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전량 소각을 결정하고, '밸류업 플랜'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 LG그룹 역량과 시너지를 결집한 파주 AIDC 구축과 DBO 사업 확장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방침.
	<p>□ BNK부산은행, VVIP 고객 대상 'AI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NK부산은행이 시그니엘 부산에서 VVIP 고객 100명을 초청해 'AI 시대, 부의 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민간기업</p>	<p>도는 어떻게 바뀌는가'를 주제로 프리미엄 세미나를 개최. 김영익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금융시장 변화와 AI 기반 자산관리 전략을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교수는 AI 혁명이 산업 구조와 자산 흐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한 실질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 확보. - 최재영 WM/연금그룹장은 고객 중심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대표 자산관리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
<p>대학교</p>	<p>□ KAIST, 과학기술·외교 허브 '과기외교센터' 공식 출범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가 과기외교센터(KCSD)를 공식 출범하며 기술주권 확보·글로벌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후위기·고령화·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인류 공동 과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 AI 시대 기술주권과 과학외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전망. - 기념 글로벌 포럼에서는 전 외교부 장관 박진 초빙석학교수가 'AI 시대 과학외교의 중요성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EU·싱가포르·스웨덴·노르웨이 등 주요국 대사들과 AI 기술혁명 속 기술 경쟁력·안보 확보와 국제 협력 규범·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 - 이광형 총장은 과학기술이 국가 간 신뢰 구축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라며, KAIST 과기외교센터가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p>□ 동의과학대,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부산 유일 단독형 선정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과학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24개 사업단을 선정한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부산 유일 단독형으로 선정. 사업단은 2028년 2월까지 2년간 재정 지원을 받으며 올해 지원금은 10억원. - AI를 단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 목적. 선정 사업단은 강점 분야와 지역 여건을 결합한 특화 모형을 구축하고 실습실·스마트 강의실 마련, 생성형 AI 이용 계정 보급 등을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과학대는 최근 전교생 대상 AI 통합 교육 플랫폼 'DIT AI-ONE Platform'을 구축하고 학생 5500명에게 AI 계정을 발급하는 등 대학 교육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 중.
	<p>□ KAIST 연구팀, 초고주파 정밀 신호원 구현 성공...6G·블랙홀 관측 활용 기대 (2026.05.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기계공학과 김정원 교수·물리학과 이한석 교수 연구팀이 '마이크로콤' 광학 칩 기술을 활용해 초저잡음·초고안정 밀리미터파 대역 신호 생성에 성공. 22GHz 대역에서 -125 dBc/Hz 수준의 위상잡음을 기록하고, 10^{-18} 수준의 초고안정 주파수 성능 확보. - 신호를 44GHz·66GHz 밀리미터파 대역으로 확장하면서도 3 펨토초(1000조 분의 3초) 수준의 극도 높은 시간 정밀도를 구현. 기존 전자식 신호원의 고주파 잡음 증가와 장시간 안정성 유지 한계를 극복. - 상용화 시 6G 통신 데이터 전송 신뢰성 향상, 자율주행·국방 레이더 정밀도 향상, 블랙홀 관측 등 초고해상도 우주 관측 기술 발전에 기여할 전망. 연구 결과는 '레이저 & 포토닉스 리뷰'와 '옵티카'에 각각 게재.
해외	<p>□ 테슬라, 벨기에 플란데런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험 운행 승인 획득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슬라가 벨기에 플란데런 지역 도로에서 운전자 감독 방식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차량 1대에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승인 획득. 번호판 등록과 보험 가입을 마치는 즉시 시험 운행 착수 가능. - 네덜란드에 이어 EU 회원국 내 두 번째 허용 사례로, 플란데런 승인은 벨기에 전역에서 효력 발생. 네덜란드 도로 환경·교통 법규와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약 5000km에 걸쳐 차량 시험을 진행할 예정. - 더 리더르 플란데런 장관은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유럽 임시 형식 승인 작업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해당 소프트웨어는 차량을 직접 제어하되 운전자 주의 의무가 전제 조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젠슨 황 제외된 트럼프 방중 재계 동행단...AI 칩 수출 협상카드 해석 (2026.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팀 쿡·일론 머스크·래리 핑크 등 10여 명 이상의 기업인이 동행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명단에서 제외. 최첨단 AI 칩 수출은 '레드라인'으로 유지하되 AI 칩 수출 통제를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한 의도적 신호로 해석. -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은 허용했으나 블랙웰·베라 루빈 등 최첨단 AI 칩 수출은 금지 유지 중. 중국은 H200 수출 허용에도 자국 기술 기업의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며 독자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나, AI 산업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미국산 첨단 칩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 -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규제 완화 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기 가격 결정력에 악영향 우려와, 중국 내 H200 판매 허용 시 HBM 출하 증가 기대감이 공존.
	<p>□ 미국 vs 중국, AI 시대 노동시장 대응 정반대 양상 (2026.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4대 빅테크(알파벳·아마존·MS·메타)가 올해 AI 인프라에 총 7250억달러(약 1077조원)를 투입하며 대규모 인력 감축을 병행. 아마존 약 3만명, 메타 8000명, MS 약 12만5000명 자발적 퇴직, 알파벳 1500명 감원. 마크 저커버그 CEO는 감원이 "AI 인프라 예산의 직접적 결과"라고 직접 밝힘. - 반면 중국은 기존 인력을 유지한 채 무인 차량·드론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 지난 3월 5개년 경제계획에서 "대규모 실업 위험 사전 차단"을 명시하고, 사이버보안 감독기구가 "AI를 인간 고용 대체 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초안 문건을 개발자들에게 발송. - 전문가들은 시장 효율 중심의 미국식 '구조조정형'과 사회 안정 우선의 중국식 '인간우선형'이 AI 시대 노동시장의 두 가지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전망.
	<p>□ CME, 세계 최초 'GPU 임대료 선물시장' 하반기 개설 예정 (2026.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올해 하반기 세계 최초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GPU 컴퓨트 선물시장'을 개설할 계획 발표. AI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연산 능력을 미리 가격을 정해 사고파는 방식으로, 널뛰던 GPU 임대료에 기준점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ME 그룹은 “모든 AI 학습은 컴퓨터 연산력에서 나오며 이는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라고 평가. AI 기업들이 '비용 폭탄' 위협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는 셈. - AI 인프라가 단순한 기계 장비를 넘어 금융 자산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p>□ 나델라 MS CEO, 머스크-오픈AI 재판에서 "오픈AI 투자 시 머스크로부터 연락 없었다" 증언 (2026.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머스크의 오픈AI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MS가 2019~2023년 총 130억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머스크로부터 우려를 표명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 “우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답변. - 나델라 CEO는 오픈AI 투자가 기부금이 아닌 상업적 파트너십이었다고 강조하며, 2023년 올트먼 기습 해임 사태에 대해 이사회가 구체적 설명 없이 해임했다며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비판. 올트먼 MS 영입 시도는 경쟁사에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 - 일리아 수츠케버 전 오픈AI 수석과학자도 증언대에 올라 올트먼 해임을 1년 전부터 고심해왔
기타	<p>□ AI 해고가 미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충격과 한국 영향 분석 (2026.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테크 기업의 AI 주도 대규모 감원이 주택 구매층의 핵심인 화이트칼라 중산층을 직격하며 주거 수요 기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충격으로 확산. 2026년 들어 미국 테크 업계에서 하루 평균 870명이 해고되고 있으며 Redfin 설문 결과 미국인 59%가 AI 실직 우려로 주택 구입을 주저. - 도시별로 오스틴은 오라클 3만명 감원 영향으로 중위 매매가 3.4% 하락, 실리콘밸리는 공급 부족으로 버티는 중이나 빅테크 추가 감원이 변곡점 될 수 있다는 경고. 한국은 해고 대신 신규 채용 급감 방식으로 충격이 전달되며, AI 대체 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p>직종 채용공고가 3년간 56.3% 급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주택시장은 소득·전세·공급의 3중 잠금 구조로 청년 소득이 줄어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구조.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표면적 집값 안정 속 청년만 시장에서 밀려나는 '세대 간 고착'으로 전망.
	<p>□ 국민 10명 중 3명만 소비생활에 AI 활용...권역별 격차도 확인 (2026.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원이 디지털·AI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86.8%가 AI를 인지하고 있으나, 소비생활·업무에 중요하게 활용한다는 응답은 32.3%에 그침. 권역별로 수도권이 AI 활용률(34.5%)·AI 상품 구매 경험률(76.7%) 모두 가장 높고, 호남권이 각각 28.2%·69.5%로 가장 낮음. - 3특(강원·세종·제주) 중에서는 강원이 AI 활용률(30.6%)·구매 경험률(76.5%) 모두 가장 높고, 제주가 활용률(21.1%)·구매 경험률(63.2%) 모두 가장 낮아 권역별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시사. - AI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실제 활용 수준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지역간 디지털·AI 소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